

일일 국제 기후·에너지 동향

기후·에너지 정책

◆ 영국, 무배출 차량(전기차) 의무제 보완 시행 발표(주영국대사관)

- 영국 정부는 4.7(월) 무배출차량(Zero Emission Vehicle, ZEV) 의무제* 이행에 관한 이해관계자 업계 수렴 결과 및 보완 계획을 발표함.

* 무배출차량 의무제(ZEV mandate)는 2035년까지 자동차 제조사들이 달성해야 하는 무배출 차량(전기차) 판매 비율을 설정하고,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제도

- (검토 배경) 영국 자동차업계는 2024년에 도입된 무배출차량 의무제의 비율(22%)이 2025년부터 28%로 증가하나 △전기차 수요 둔화와 구매 인센티브 부족 △충전 인프라 부족 등으로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호소해 온 바 영국 정부는 해당 제도의 보완을 위한 2024.12월~2025.2월간 의견을 수렴함.
- (보완 내용) 영국 정부는 의견수렴 결과를 공개하며 다음과 같은 보완 조치를 발표함.

- (내연기관 판매 금지) 2030년부터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 금지 규정은 유지하며, 2035년 이후 판매되는 모든 신차는 완전 무배출 차량 기준 충족 필요

※ 다만, 내연기관 승합차(vans)는 2035년까지 판매 허용

- (2030-2034 허용 차량) 하이브리드 전기차(HEVs)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(PHEVs)*도 2034년까지 판매가 허용됨을 공식 확인

* 기존 규정은 HEV 및 PHEV가 2035년 이전까지 판매가 허용되는 것인지 불분명

- (목표달성 유연성 확대) 제조사들이 향후 전기차 도입 계획, 판매 전략 등에 따라 목표 달성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기존에 부여한 유연성을 확대

- 2026년까지만 인정했던 허용량(allowance) 차입(borrowing)을 2029년까지로 확대하고, 기존 차입분은 2030년까지 상환

※ 전기차 도입계획이 2026년 이후인 제조사는 미래의 허용량을 올해로 차입해 올해 의무를 달성하고, 미래에는 전기차 도입 확대에 상환하는 것이 가능

- 비 무배출차량(non-ZEV)에서의 2021년 대비 CO₂ 절감분(savings)을 무배출 차량 공제분(credit)으로 변환하는 제도도 2029년까지 연장

※ 2021년 내연기관 차량만 판매하던 제조사가 이후 하이브리드 등을 도입해 2021년 대비 CO₂ 배출을 줄인 경우 변환율에 따라 확보한 공제분을 목표 달성에 활용

- 승합차(vans) 1대 공제분(credit)을 일반차량 2대 공제분으로 교환 신설

※ 승합차일반차량을 모두 판매하는 제조사가 EV 승합차 1대 판매 시 일반차량 2대를 판매한 것으로 인정

- (부담금 완화) 목표 불이행에 따른 해당 부과금 15,000파운드를 12,000파운드로 완화

- 한편, 영국 자동차 업계는 동 계획에 대해 전반적으로 산업계 애로사항을 일부 반영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평가하나, 핵심적인 문제인 소비자 수요 둔화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평가함.

- 영국 자동차산업협회(SMMT)는 "정부가 산업계 의견을 들어왔다"면서도, "미국의 관세 부과 이후 산업계가 마주할 어려움 고려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며, 영-미 간 협상이 속도를 내야 한다"라고 지적

※ 최근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(25%)가 겹치면서 최근 국내 생산이 쇠퇴하고 있는 영국 자동차업계에 전기차 의무제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. 끝.